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고려 시대 연구

- '蒙古襲來'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I. 서언

II. 대륙과 일본의 연결

III.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에서 일본사의 위상

IV. 결어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학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2017S1A6A3A01079517).

● 투고일: 2021. 2. 23. ● 심사일: 2021. 2. 24. ● 게재확정일: 2021. 3. 11.

● <https://doi.org/10.31218/TRKH.2021.3.141.95>

www.kci.go.kr

요약

19세기 후반 이래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된 일본사의 전개과정을 고려할 때, 당시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주변으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일본의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전개는 ‘동양’의 형성 과정이었다고도 이야기된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는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성격, 즉 ‘동양’의 형성 과정 속에 위치짓고,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상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대륙에서 연이어 등장한 북방민족의 거듭된 침략과 묘청의 난·무신정변 등으로 대변되는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한국사의 대내외적 혼란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와 서술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바로 몽골의 고려 침략과 元의 간섭 및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특히 蒙古襲來를 전후한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를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타울성론’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蒙古襲來’는 일본사와 직결된 것으로, 刀伊의 入寇와 더불어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유일한 사건이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점에서 일본사의 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元, 고려, 南宋, 일본 등 당시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말 그대로 동아시아적 사건이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몽고습래를 고려의 대외관계를 통해

접근했던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를 이른바 ‘동양’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은 고려에서 元의 종주권 확립이 元이 대일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선결과제로 파악했다. 즉 대륙(원)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려의 대외관계를 바라본 것이다. 또한 蒙古襲來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元의 南宋 경략은 물론 이들과 고려 및 일본과의 관계까지도 시야에 담으며 일본의 존재를 당시 동아시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위치지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시 연구자들은 13세기 중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고려 건국 이래 고려와 송·일본이라는 동아시아 3국의 관계와 교통에 대한 고찰로 그 시야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이 대륙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즉 蒙古襲來라는 사건을 고려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나아갔던 과거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이 사건을 동아시아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켰음은 물론 대륙의 역사적 전개에 주요한 변수로서 일본을 위치지었다.

주제어 : 식민주의 역사학, 근대 역사학, 동아시아, 동양, 몽고습래

I. 서언

19세기 말 이래 1945년에 이르는 시기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는 ‘식민사학’이라고 통칭되어 왔다.¹⁾ 이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래 그 침략성과 역사 왜곡의 측면이 규명되어왔다. 한편 근래에는 ‘식민사학’을 대신하여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사를 비롯한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역사 연구가 ‘식민주의’에 입각한 ‘근대 역사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²⁾ 주지하듯이 19세기 후반 일본인 역사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당시는 일본이 주변으로의 침략을 본격화했을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된 일본사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확립·전개될 당시는 일본이 주변국으로 침략을 감행하며 그 판도를 확장시키고자 할 때이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함께 전개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는 침략과 지배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진전 과정 속에도 위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³⁾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전개는 ‘동양’의 창출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된다.⁴⁾ 이는 메이지 이래 성립한 근대 국가 일본의 과

1) 1961년 李基白이 『國史新論』의 「緒論」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의 침략성과 역사왜곡의 측면을 거론한 이래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다.

2) 식민주의 역사학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윤해동, 2015,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379~386쪽을 참고할 것. 한편 식민주의 역사학의 이러한 속성에 주목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윤해동·이성시 엮음, 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 함께; 윤해동·장신 엮음, 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소명출판; 윤해동·경준영 편, 2018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도서출판 선인;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3) 정상우, 위의 책, 23~26쪽.

거로서 일본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사의 타자로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의 역사를 배치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양’의 형성에서 지니는 의미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고대사 및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19세기 후반 이래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수용·정립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때문에 침략과 병합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또 자국사(일본사)의 기원을 밝히고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광개토대왕릉비’, ‘임나일본부’, ‘일선동조론’, ‘임진왜란’ 등 고대사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대외관계사 위주로 한국사를 연구했다는 것이다.⁵⁾ 즉 침략과 병합의 합리화를 위해서든, 일본사의 기원·범위의 설정을 위해서든, 식민주의 역사학은 일본을 위한 한국사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식민주의 역사학은 고대사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와 관련해서는 한국사의 타율성론에 입각한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이 적다고 언급되어왔으며,⁶⁾ 그렇기 때문에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 주요한 분석 대상은 아니었다. 실로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60년에 가까운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사에서 본격적으로 당

4)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이 책은 2004년에 번역되었다.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역),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5) 이만열, 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 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한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17~18쪽; 정상우, 앞의 책, 143~149쪽.

6) 박종기, 1994, 「고려사회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 5, 한길사, 62쪽.

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고려시대 연구를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룬 것은 1990년대 들어 등장하며,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10년대 들어 4~5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그마저도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목록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식민주의 역사학자로서 1945년 이후에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벌인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1868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표된 한국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방대한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을 보면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는 고대사와 임진왜란에 집중되었으며, 고려시대 관련 연구는 적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스에마쓰가 제시한 고려시대 관련 논문 목록을 보면 그 70% 가량이 중국, 거란, 여진, 몽골, 일본 등과 고려의 관계, 북방 세력과 고려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주요 지명에 대한 비정, 원 간섭기 고려와 고려에 미친 원의 영향 등과 같이 대외관계 관련 사항들이며, 그 외의 논문들의 목록에서 ‘內亂’, ‘禍亂’ 등의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⁷⁾

그렇지만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에 있어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등장했다. 바로 1892년에 발간된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朝鮮史』가 그것이다. 하야시와 그의 저작 『朝鮮史』는 식민주의 역사학을 다루는 연구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그것이 근대 역사서술

7) 末松保和 編, 1972, 『朝鮮研究文獻目錄 1868-1945, 論文・記事編』(I), 118~125쪽. 한편 이 목록을 보면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 목록은 17페이지, 조선시대는 16페이지(그중 임진왜란 관련이 6페이지)에 달하는 데에 반해 고려시대는 7페이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려시대 연구 목록에서 한국인의 연구 성과와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논문 편수는 121편 정도이다. 한편 末松이 제시한 고려시대 연구 논문 목록에는 鄭夢周, 金富軾 등 역사적 인물이나 高麗史와 같은 자료, 또는 開城의 역사·지리·유적 등에 대한 소개와 같은 학술적 성격이 약한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에서 대외관계나 외세가 고려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체계에 입각한 한국사에 대한 최초의 통사로서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이 책은 고려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이었다.⁹⁾ 이는 과거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나 일본 역사가들의 한국사관 형성에 있어 고대사와 더불어 고려시대사가 중요한 요소였음을 시사한다.

피상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대륙에서 연이어 등장한 북방민족의 거듭된 침략과 묘청의 난·무신란 등으로 대변되는 정변 등과 같이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한국사의 대내외적 혼란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였다.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의 역사상에 대한 ‘왜곡’을 주목한 초기의 연구에서도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은 고려시대에 벌어진 외세의 침략을 부각하는 한편 李資謙·妙淸의 난, 무인정권을 통해 그 정치적 혼란을 강조했다고 지적하였다.¹⁰⁾

한편 근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고려시대 연구에 대해 제출된 연구들은 만선사와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 연구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륙-만주와 반도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만선사의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에게 거란(遼), 여진(金), 몽골(元) 등 만주를 장악한

8) 이에 대해서는 최재석, 2003, 「1892년 하야씨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선사와 고대』 18; 權純哲, 2009, 「林泰輔의『朝鮮史』研究の内容と意義」, 『埼玉大學紀要』 45-2; 최혜주, 2010,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 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288~292쪽.

9) 총 5권으로 구성된 林泰輔의 『朝鮮史』에서 4권과 5권이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이다.

10) 朴杰淳, 1992, 「日帝下 日人の 朝鮮史研究 學會와 歷史(高麗史) 歪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29~48쪽. 한편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고려시대 정치적 혼란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증추원과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했던 瀨野馬熊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그가 왕규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 당파성론의 적용범위를 고려시대까지 확대시켰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洪珣瑛, 2018,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의 編史활동과 한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85, 32~34쪽.)

북방세력들과 외교적·무력적 교섭을 거듭했던 고려왕조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다. 특히 21세기 이래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국경과 영토, 영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려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만선사의 중추기관이었던 만철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이하 ‘조사부’)에 몸담았던 연구자들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츠다 쇼키치[津田左右吉],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등 - 이 고려와 북방세력의 접촉을 중심으로 진행한 역사지리 비정의 결과물이었다.¹¹⁾ 또 식민주의 역사학 전개의 중추기관이라 평가되는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朝鮮史』 3편(고려시대편)을 대표적인 만선사학자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편수하게 됨에 따라 요, 금, 송, 원 등과 고려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지적¹²⁾ 역시 당시 만선사적 관점에서 고려시대가 주목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고려시대 연구와 서술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고려시대 연구는 그 정치적 혼란을 강조하고, 만선사라는 식민주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주체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 역시 축소하였다는 것으로,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고려시대가 연구·서술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1) 권영국, 2014,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사학연구』 115; 김대식, 2014, 「일본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영토·영해 문제의 기원」, 『사학연구』 115; 김대식, 2018, 「일제강점기 일본식민사학자들의 고려 영토 인식」, 『사람』 63. 이 연구들은,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고려의 동북면 경계(公嶮鎭)를 두만강 이북이라고 기재한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불신하며 두만강 일대 혹은 그 이남의 길주나 함흥평야로 비정했음을 제언하였다.

12) 정상우, 2017,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관성 - 『朝鮮史』 제3편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그런데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와 서술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띈다. 바로 몽골의 고려 침략과 元의 간섭 및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특히 蒙古襲來를 전후한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 점은 지적되고 있다.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은 몽골의 침략을 상세히 서술하고, 元의 駙馬國이었던 고려에 미친 元의 간섭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고려의 對元 종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에 대해서는 고려 후기의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면서 당시 정벌군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벌로 인한 고려의 피해를 부각했다는 것이다.¹³⁾ 이는 고려시대의 ‘타율성’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드러내기 위해 고려와 元의 관계,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주목되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蒙古襲來’라고 지칭되는 이 사건은 일본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일본사를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1274년과 1281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몽골의 일본 침략은 刀伊의 入寇와 더불어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유일한 사건이자,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점에서 일본사의 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元, 고려, 南宋, 일본 등 당시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말 그대로 동아시아 적 사건으로서, 식민주의 역사학이 복무한 ‘동양’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관심을 蒙古襲來를 전후한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는 침략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연구되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의 고려시대 연구·서술의 이면,

13) 朴杰淳, 앞의 논문, 44~46쪽.

바로 한국사 연구를 통한 일본사의 해명과 ‘동양’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주로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관련 연구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필자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합 이후 일본 학계에서 한국사 연구는 식민지 조선, 특히 『朝鮮史』 편수를 위해 조선에 부임하여 각종 사료를 수집·정리해야만 했던 조선사편수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조선사편수회는 당시 한국사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¹⁴⁾ 뿐만 아니라 후술 하듯이 1930년대 일본학계에서 대대적인 연구사 정리를 진행할 때에도 한국사에 대한 서술은 조선사편수회의 인사들이 담당했다는 것 역시 당시 한국사 연구의 중심은 조선사편수회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군다나 1920년대 중반 이래 조선사편수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나바 이와키치,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 등의 연구자들은 고려와 元, 고려와 일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蒙古襲來를 고찰하는 연구를 수차례 발표하여 13세기의 국제 정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하며, 해당 분야의 연구를 진척시켰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비록 한계는 있겠지만, 식민지기 고려시대 연구, 특히 對元·對日 관계와 蒙古襲來에 관한 연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II. 대륙과 일본의 연결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고려시대 연구·서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4) 정상우,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사학연구』 116, 173~189쪽.

하야시의 『朝鮮史』(1892)는 그 목차만 보아도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고려의 정치적 혼란을 부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契丹’, ‘女眞’, ‘蒙古’, ‘日本(倭寇)’ 등의 외세와 ‘亂’, ‘變’, ‘凶逆’, ‘專橫’ 등 정치적 혼란을 나타내는 용어를 통해 고려시대의 시대 구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서술의 골자 역시 고려는 대륙 세력에 臣屬되어 있는 데다가 내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가운데 ‘蒙古ノ入寇及ビ日本ノ役’이라는 별도의 章이 설정되어있는 것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고려시대를 연구·서술하던 초기부터 이 사건을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관해 하야시는 고려가 元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일본 침략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과 일본을 침략한 원과 고려 군대의 거대한 규모와 피해 상황을 서술하는 데에 그쳤다. 즉 元에 복속되어 일본원정에 참전한 고려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으로, 고려왕조의 외세 의존성과 이로 인한 참화를 말할 뿐 蒙古襲來를 동아시아라는 판도 속에서 사고한다거나 일본사의 전개와 연결짓지는 않았다.¹⁶⁾

이후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인 역사가들의 고려시대 연구는 1910년 이후 종종 등장했다. 이는 한국 강점에 따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겠지만, 새로운 사료의 활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로 1909년 11월 일본의 國書刊行會에서 그때까지 일본 학계에 거의 소

15) 고려시대의 정치적 과정을 서술한 林泰輔의 『朝鮮史』 卷4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第1章 高麗太祖ノ創業及ビ成宗ノ治 / 第2章 康兆ノ亂及ビ契丹ノ關係 / 第3章 女眞ノ役 / 第4章 李資謙及ビ妙淸ノ變 / 第5章 鄭李ノ凶逆 / 第6章 崔氏ノ專橫 / 第7章 蒙古ノ入寇及ビ日本ノ役 / 第8章 元室ノ專制 / 第9章 辛氏ノ凶逆及ビ繼位 / 第10章 北元及ビ明ノ關係 / 第11章 倭寇 / 第12章 高麗ノ滅亡

16) 林泰輔, 1892, 『朝鮮史』 卷4, 吉川半七, 第7章. 다만 林은 蒙古襲來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 앞에 元의 고려 침략 즈음부터 ‘日本 邊民’이 ‘고려의 州縣을 侵掠’했다는 것과 전쟁의 경과를 설명하며 고려의 왕(忠烈王)이 원 황제에게 일본 토벌을 청했다는 구절을 넣었다. 이를 볼 때, 그의 서술은 이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왜구의 고려 침략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겠다.

개되지 않았던 ‘高麗史’ 전부를 간행하여, 그 활용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高麗史’의 간행은 이후에도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高麗史’를 이용하여 ‘半島의 內政’을 고찰할 수 있음은 물론 年次月次 등이 부정확한 遼史를 시정할 수도 있었으며, 고려와 宋, 고려와 金과의 관계, 元이 반도를 손에 넣은 이후 증가한 고려와 일본의 교통 등을 규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1910년대 이래 고려시대 연구를 이끈 것은 만철 산하의 조사부였다. 주지하듯이 1913년 조사부에서는 『滿洲歷史地理』·『朝鮮歷史地理』를 발간했으며, 이후 도쿄제대 문학부로 이관했지만 1915년 이래 꾸준히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를 출간했다. 주로 만주와 한국에서 등장한 왕조의 경계와 주요 하천과 지명, 교통로 등에 대한 역사지리적 비정에 집중했던 조사부의 작업에서 『朝鮮歷史地理』를 담당했던 것은 츠다였다. 그는 고려와 관련해서는 그 북방 경계를 확정하는 데에 집중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케우치 역시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에 걸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의 지면을 통해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다.¹⁸⁾ 이들의 연구에서 高麗史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케우치는 고려 成宗代 북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築城에 대하여 高麗史의 해당 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의 築城을 여진 경략의 측면에서 고찰·비정했던 츠다의 견해를 반박하고, 그것이 거란에 대한 대비였다는 논의를 전개했으며, 顯宗代에 있었던 거란의 침입에 대한 논문에서는 高麗史의 기사들을 근거로 遼史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¹⁹⁾

17) 稻葉岩吉, 1932, 「東洋史學發達の回顧と展望 - 朝鮮史」, 『明治以後に於ける歴史學の發達』, 歴史教育研究會, 517~519쪽.

18) 당시 津田, 池内 등의 고려 북방 경계 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에서 제시한 권영국과 김대식의 논문을 참고할 것.

19) 池内宏, 1918,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5, 16~20쪽; 池内宏, 1920, 「高麗顯宗朝に於ける契丹の侵入」, 『滿鮮地理歷史

이들이 고려의 북방 경계로 대변되는 주요 지명을 획정하는 작업은 주로 당시 연이어 등장했던 거란, 여진 등의 북방 세력의 고려에 대한 침략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장소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외침이라는, 외세와의 관계를 통해 고려시대의 역사상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타율성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거듭 등장한 북방 세력들이 고려를 주목했던 것은 중국(宋)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고려는 북방 세력과 중국 사이에서 침략과 교섭의 대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다.²⁰⁾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원인이 宋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宋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고려는 事大의 대상을 송에서 거란으로 변경하고 강동 6주라는 새로운 영토를 획득했다는 이케우치의 서술은²¹⁾ 동아시아 역사 전개에서 고려를 북방 세력의 교섭/침략의 대상으로서 위치지으며 고려왕조의 사대성까지도 부각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만철 조사부에 몸담았던 연구자들에 의해 고려왕조의 북방 경계를 중심으로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한편 조선사 편수회에서 『朝鮮史』 편수에 종사하고 있던 나카무라 히데다카 역시 1926년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史學雜誌』에 무려 3회에 걸쳐 연재된 이 연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蒙古襲來를 둘러싼 고려의 對元・對日 외교를 주목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려와 원

研究報告』 7, 179~186쪽.

20) 한편 중국의 대 고려정책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만선사학자인 稻葉岩吉은 唐末 이래 중국인들은 북방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문화를 반도에 덧씌우고, 거란·여진 등을 비방함과 아울러 ‘以夷制夷’의 외교 수단을 강화했다며, 고려를 중국 문화의 수용소이자 중국의 교섭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다.(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10~12쪽.)

21) 池内宏, 1918, 앞의 논문.

의 관계를 통해 蒙古襲來를 고찰하고자 했던 것은 나카무라가 처음은 아니었다. 나카무라가 자신의 논문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蒙古襲來를 둘러싼 고려와 元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아오야마 쿠후료우[靑山公亮]가 두 편의 연구를 발표했으며, 나카무라의 논의는 바로 이 아오야마의 연구 - 특히 두 번째 연구 - 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학계에서 蒙古襲來에 대한 관심은 오래된 것이었다. 에도시대 말 서구로부터 외압이 있던 시기 이래 이 사건은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유용한 소재였기 때문에 청일·러일전쟁 당시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고양되었던 것이다.²²⁾ 하지만 蒙古襲來를 전후한 시기 고려의 외교에 초점을 맞추며 그에 접근한 것은 아오야마였다. 그는 1921년과 1925년에 각각 「日元間の高麗」, 「弘安役と高麗」를 통해 이러한 접근의 발단을 열었다. 이는 元 황제 쿠빌라이가 ‘天下에 君臨한다는 支那 天子의 전통적인 理想’²³⁾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복종을 바라게 되면서 이를 위한 對日 교섭을 맡게 된 고려의 외교를 다룬 것이었다. 여기서 고려를 바라보는 아오야마의 시각은 ‘世祖(쿠빌라이)의 對日本政策을 연구하는 것은 半島의 내일을 아는 열쇠’²⁴⁾라는 언급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고려는 대륙과 일본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개된 두 편의 논문은 元과 일본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한 고려가 두 나라를 상대로 ‘彌縫’과 ‘虛言’으로 일관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여 심각한 戰禍를 입었다는 논지가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이 고려시대에 대한 ‘타울성론’에 기반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아오야마는 이 연구에서 1268년 元의 황제가 江華島로 피신한

22) 남기학, 2011, 「몽골의 일본 침략 -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 『한림일본학』 19, 6~7쪽.

23) 靑山公亮, 1921a, 「日元間の高麗」 1, 『史學雜誌』 32-8, 19쪽.

24) 靑山公亮, 1925, 「弘安役と高麗」, 『史學雜誌』 36-10, 26쪽.

고려 왕실의 開京 환도와 전쟁 준비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과 같은 여몽 관계만이 아니라 林衍의 元宗 폐위 시도, 三別抄의 亂 등 고려에서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공들여 서술하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蒙古가 그 勢力을 한층 朝鮮半島에서 확립할 때 다시 쉽게 고려를 부려 (願使하여) 對日交渉의 進陟을 企圖할 수 있기 때문에 對日問題 해결의 기초로서도 그 세력을 半島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 蒙古는 그 勢力을 韓半島에서 확립하기 시작한 위세를 타고 傲然하게 우리나라 (일본: 인용자)에 臨하여 그 요망을 強請했고 …²⁵⁾

즉 쿠빌라이가 원했던 일본의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사정을 알고 있는 고려를 복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오야마는 고려의 개경 환도가 있었던 1270년에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1270년 이후 元의 대일정책 역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야마는 1268년 쿠빌라이가 고려에 각종 군사적 의무들을 떠맡긴 것은 고려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內屬國’에 대한 의무를 지운 것이지 일본정벌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했다. 한편 1270년 元은 고려에서 종주권을 확립했지만, 고려를 매개로 대일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다. ‘高麗의 紛亂’ - 三別抄의 亂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를 통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려는 쿠빌라이의 대일정책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쿠빌라이는 1270년 이후에도 2차례나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지만, 1273년 3월 이들이 별다른 성과없이 돌아오자 결국 이듬해 자신의 이상 실현을 위해 일본을 침략했다는 것이 아오야마의 결론이었다.²⁶⁾

25) 靑山公亮, 1921b, 「日元間の高麗」2, 『史學雜誌』 32-9, 32~35쪽.

이처럼 아오야마는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 확립 과정을 통해 元의 對日정책에 대한 해명으로 나아갔다. 즉 아오야마는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 확립이라는 여몽관계를 해명하며 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켰다. 또한 그는 元과 고려의 관계를 통해 1270년 이전 元과 고려 사이의 일을 일본 정벌과 연결짓는 것을 경계하며, 쿠빌라이의 일본 침략은 고려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고 일본으로의 사신 파견이 무위로 돌아간 1273년 3월 이후부터 준비·진행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언급한 나카무라의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1926)은 아오야마의 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나카무라는 아오야마의 연구를 蒙古襲來 당시의 정국을 고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논문이라며 謝意를 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아오야마의 논의에 대해서는 ‘定說로 보는 데에 躊躇하지 않는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아오야마의 두 번째 논문, 바로 「弘安役と高麗」에 대해서는 ‘東洋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지위’와 더불어 ‘元과 高麗의 사정’을 함께 살피는, 이른바 ‘東洋의 大局에 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며 자신의 논의를 전개했다.²⁷⁾

元의 1차 침입(1274)과 2차 침입(1281) 사이 元-고려-일본의 관계라는, 아오야마의 두 번째 논문과 나카무라의 연구는 같은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일한 高麗史의 기사들을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두 지점에서 견해차를 드러냈다. 첫 번째는 元의 2차 침입 준비가 중단된 이유이다. 두 사람 모두 1차 침입 다음 해인 1275년부터 元이 일본에 파견할 사신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침략을 위한 전함의 수리와 건조를 고려에 명했지만, 이듬해 1월 전함 제작을 중지시킨

26) 青山公亮, 1921b, 위의 논문, 38~45쪽.

27) 中村英孝, 1926a,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 『史學雜誌』 37-6, 34쪽.

이래 3년여간 일본정벌을 위한 준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정벌이 지연되고 있던 사실을 지적했다. 아오야마는 이렇게 元의 일본 재정벌 준비가 중단·지연된 원인을 1차 침입의 실패에 두었다. 즉 元은 1차 원정의 참패로 일본의 복종을 바라면서도 적극적인 전쟁 준비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⁸⁾ 반면 나카무라는, 몽골인들은 어느 곳이든 침략하면 재물을 약탈하고 떠나 버리기 때문에, 元은 1차 침입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라면 元의 일본 재정벌 준비가 지연된 원인을 1차 침략의 실패에서 찾았던 아오야마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카무라는 일본 재정벌 준비가 지연된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

어떤 動機로 世祖는 日本再征 준비를 停止한 것인가. 불행히도 이것을 말해 주는 사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 지금 여기서는 다만 憶說을 提出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다. 즉 南宋經略의 形勢가 停滯하여 일시적인 중지를 명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高麗는 제 1회 遠征에서 우연히 일어난 天災 때문에 艦船士卒를 잃은 것이 매우 많아서 … 忠烈王은 金方慶 등을 보내 上表하여 국가의 窮情을 陳하여 再征의 거사를 말아 달라고 哀訴할 정도였다. 이미 고려는 극히 從順한 藩屬國이었다. 게다가 충렬왕은 세조의 사위였다. … 元麗의 관계는 문자 그대로 一家가 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窘迫 가련한 情態에 世祖로서는 또 충분히 同情하는 바가 없을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명성을 후세에 드리우고자 했던 世祖로서, 東方邊海의 一島夷의 招諭에 실패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여기서 世祖는 南宋征討에 착수하자마자 再征을 목적으로 한 軍備를 고려에 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9월(1275년 9월: 인용자) 하순 이래 宋軍이 필사적으로 拒守하여 진격에 약간의 停頓을 본 世祖는 한편으로는 고려에 대한 同情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준비를 중지하고, 形勢를 觀望하기로 한 것은 아닐까.²⁹⁾

28) 青山公亮, 1925, 앞의 논문, 38~39쪽.

29) 中村英孝, 앞의 논문, 39~40쪽.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카무라는 元과 고려의 관계 및 元의 南宋 공략 상황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즉 순조롭게 전개되던 南宋 공격이 고려에게 일본정벌 준비를 명령한 이후의 시점에서 정체되었으며, 여기에 駙馬國 고려에 대한 동정심이 가미되어 일본에 대한 2차 침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1279년에 들어 宋의 降將들을 중심으로 일본정벌을 위한 준비가 재개되었을 즈음 崖山戰鬪의 승리로 南宋의 완전한 멸망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4년전에 일본에 파견했던 사신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정벌의 결행은 시간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⁰⁾ 이와 같은 나카무라의 주장은, 元의 2차 침입 준비는 南宋 정벌의 경과와 상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아오야마와 나카무라의 두 번째 견해차는 당시 元에 대한 고려의 외교에 관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1278년 4월과 1280년 8월 충렬왕이 직접 쿠빌라이를 찾아간 사건을 전하는 高麗史의 기사를 제시했다. 1278년은 일본원정을 위한 준비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시기에 고려 국왕은 쿠빌라이에게 일본정벌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했다. 반면 일본정벌 계획이 빠르게 진전되던 1280년에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일본원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아오야마는 1278년 충렬왕의 발언을 ‘虛言’이라고 보았다. 일본원정 준비가 중단된 이후 쿠빌라이의 대일방침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외교 방책 결정에 불안과 어려움을 느낀 충렬왕이 쿠빌라이의 의중을 떠보려고 자신이 먼저 일본정벌을 언급했을 뿐 진심으로 일본원정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원정이 분명해진 시점인 1280년의 발언은 戰役에서 고려의 지위 향상과 전쟁 부담 경감을 위한 ‘國力の 소극적인 옹호정책’이라고 서술했다.³¹⁾

반면 나카무라는 일본원정과 관련해 언제나 어려움을 호소했던 고려

30) 中村英孝, 앞의 논문, 48~51쪽.

31) 青山公亮, 1925, 앞의 논문, 40~45쪽.

국왕이 먼저 일본정벌을 언급하고, 새로운 요청을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바로 ‘倭寇’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충렬왕이 쿠빌라이에게 일본정벌을 상기시킨 직후인 1278년 7월 쿠빌라이가 麗蒙聯合軍의 후방 기지였던 合浦(지금의 마산)에 머물던 元의 군대를 철수시키려 하자 충렬왕이 倭寇를 대비하기 위해 그 잔류를 요청했다는 고려사의 기사³²⁾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나카무라는 충렬왕이 일본정벌과 관련하여 쿠빌라이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하기 3개월 전인 1280년 5월, 合浦에 왜구가 침략했으며, 이를 元에 보고했다는 기사³³⁾ 역시 인용하였다. 이러한 기사를 근거로 나카무라는 당시 남해안에 출몰하던 왜구를 막기 어려웠던 고려가 그 근절을 위해 쿠빌라이에게 일본정벌을 상기시키고,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는 논의를 전개했다. 즉 고려가 왜구를 막기 위해 원을 끌어들여 했다는 것이다. 이는 元의 2차 침략을 고려에 대한 왜구의 공격이라는 麗日관계의 맥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또 1280년 쿠빌라이에게 한 요청들 가운데 충렬왕 자신이 직접 合浦에 가서 군사와 말을 검열하겠다고 한 것도 그 직전 발생한 왜구의 合浦 침략과 관계있다는 것이다. 나카무라는 元의 南宋 정벌이 거의 끝났고, 宋의 降將들도 일본정벌에 찬성했으며, 元에서 일본에 보낸 사신의 소식이 없는 가운데 쿠빌라이가 고려로부터 들려오는 왜구의 침략 소식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元이 2차 침략을 감행한 원인의 하나로 왜구를 꼽았다.³⁴⁾ 사실 나카무라는 글의 서두에서부터 元의 2차 침략의 ‘배후에는 倭寇가 숨겨져 있으며, 이것이 당시에 접하는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³⁵⁾고 역설했다. 2차 침략의 원인 중 하나로 倭寇를 꼽은 나카무라는

32) 高麗史 卷28 世家28 忠烈王4년 7월 戊戌.

33) 高麗史 卷29 世家29 忠烈王6년 5월 癸卯.

34) 中村英孝, 1926b,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2, 『史學雜誌』 37-7, 52~67쪽.

35) 中村英孝, 1926a, 앞의 논문, 35쪽.

결론에서도 당시 고려·元·일본 삼자관계의 대세를 지배한 것은 일본의 서해안과 고려의 남해안에서 일어난 사건, 바로 倭寇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³⁶⁾

결국 나카무라가 蒙古襲來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한다던 ‘東洋에서 일본의 지위’와 ‘元과 高麗의 사정’은 바로 元의 南宋 정벌과 고려의 남해안에 출몰하던 倭寇였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서 나카무라는 蒙古襲來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적 사건으로 위치짓고, 고려의 남해안에 출몰한 왜구를 이 사건의 주요 동인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카무라는 아오야마보다도 명확하게 麗元 관계를 일본사의 입장에서 정리했다고 하겠다.

한편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 확립 과정을 통해 元의 대일정책 및 쿠빌라이가 무력 침공을 결정했던 시점을 추정했던 아오야마의 논의와 2차 침략 준비 과정을 元의 南宋 정벌과 상관하여 사고해야 한다는 것은 蒙古襲來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현재까지도 그 학술적 의의를 평가 받고 있는 이케우치의 『元寇の新研究』(1931)에도 수용되었다.³⁷⁾ 이케우치 역시 ‘元寇’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야를 元 本國과 그 屬領이었던 高麗로 확대해야 한다’며 1차 침입 이전 원-고려 관계의 추이가 일본 복속의 전제였으며, 고려에 대한 종주권이 확립되기 이전 쿠빌라이의 대 고

36) 中村英孝, 1926c,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 『史學雜誌』 37-8, 49쪽. 한편 나카무라는 당시 倭寇의 실체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그는 1280년 5월 合浦를 침략한 倭寇는 사람을 생포해간다는 점에서 과거의 倭寇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元의 1차 침입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회자된 ‘異國征伐’(=몽골정벌)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倭寇의 성격 변화는 물론 일본에서의 몽골 정벌 계획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였다.

37) 池内宏의 『元寇の新研究』는 현재도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史實로서 몽고의 일본 침략 그 자체를 직시한 실증적 연구이자 사료 활용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남기학, 앞의 논문; 윤용혁, 2013, 「日本에 있어서 ‘元寇’ 연구의 현황(1976~2011)」, 『도서문화』 14.)

려정책을 일본 침략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아오야마의 논의를 ‘핵심을 찌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³⁸⁾ 또 나카무라의 논의에 대해서는 그가 제시한 元史 사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에서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차 침략 준비 과정을 南宋 정벌의 경과와 함께 사고하며, 2차 침입은 南宋이 평정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³⁹⁾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蒙古襲來’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본사라는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 점차 동아시아적 사건으로 부각되며,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Ⅲ.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에서 일본사의 위상

蒙古襲來 전후 고려의 외교를 일본사의 입장에서 정리하며 동아시아라는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아오야마, 나카무라 등의 연구들이 등장했던 1920년대 중반 元의 對 고려정책과 南宋 경략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연결지으며 蒙古襲來를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나타났다. 바로 조선사편수회의 실무를 총괄했던 이나바 이와키치의 연구였다. 그는 1925년 「支那及滿洲朝鮮と日本との關係」라는 논문을 통해 蒙古襲來의 전제로서 麗元관계 - 元의 對 고려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쿠빌라이의 즉위에 따른 고려에 대한 회유책이 그것이다. 이렇게 몽골의 對 고려 회유책에 대한 사항은 이나바의 논문이 출간되기 바로 전년인 1924년에 이미 이케우치가 지적했던 사항이다. 이케우치는 1231년 撒里台的 고려

38) 池内宏, 1931,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4쪽, 45~47쪽. 실제로 池内는 자신의 저서의 1/3 이상을 몽골의 고려정벌부터 元의 1차 침략 이전까지 원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서술로 채웠다.

39) 池内宏, 위의 책, 183~188쪽.

공략부터 쿠빌라이의 즉위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계속된 몽골의 고려 침략의 경과를 통해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으며, 쿠빌라이의 즉위 이후 몽골의 對 고려정책이 위압에서 온건책으로 변했다고 결론지었다.⁴⁰⁾ 이렇게 몽골의 고려 침략 과정을 일방적인 침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침략 과정에서 벌어진 양국의 교섭이나 쿠빌라이 즉위 후 관계의 변화를 지적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몽골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끝맺어졌다. 이나바는 이러한 쿠빌라이 즉위 이후 변화된 麗元관계를 元의 南宋 공략과 연결시키며, 對日정책으로서 평가했다.

이나바는 南宋과 대립 중이던 쿠빌라이가 南宋人과 日本人의 관계를 주목했다고 보았다. 쿠빌라이가 고려를 회유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고려를 이용하여 바로 이 南宋과 일본의 연결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나바는 그 근거로 元이 耽羅(제주도)를 直轄한 것을 들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면 元이 고려 남단의 孤島인 제주도를 경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나바는 쿠빌라이의 對 고려정책을 南宋 정벌을 위한 포석으로서 일본에 대한 대비라고 파악했다.⁴¹⁾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元의 南宋 정벌은 2차 침략 준비와 관련하여 주요한 변수로서 언급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나바는 南宋과 일본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쿠빌라이는 일본을 주시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역사 전개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시기적으로 元의 1차 침략 이전까지 확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나바가 제시한 것은 元의 제주도 경영과 관련된 元史의 기사 1개뿐으로, 그 근거는 매우 박약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1934년, 이나바는 『日麗關係』라는 짧은 단행본을

40) 池内宏, 1924,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0, 180~184쪽.

41) 稻葉岩吉, 1925, 「支那及滿洲朝鮮と日本との關係」, 『朝鮮文化史研究』, 233~237쪽.

통해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논증했다. 고려와 일본의 관계 전반을 다룬 이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은 고려 건국 이래 ‘微溫의 狀態’였던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蒙古의 半島制霸에 의해 급작스럽게 전개되었다’는 것이다.⁴²⁾ 그래서 연구의 대부분은 서명인 고려와 일본의 관계와 무관해 보이는 麗元관계, 즉 元의 고려 침략과 쿠빌라이의 즉위 전후부터 1차 침입 이전까지 元의 對 고려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이나바는 여기서 高麗史와 元高麗紀事는 물론 쿠빌라이의 휘하에 있던 漢人 郝經의 東師議, 宋 사신들의 고려 방문에 대한 기록인 高麗圖經과 建炎假道記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고려와 元의 초기 관계, 元의 침략과 고려 최씨 정권의 대응, 쿠빌라이 즉위 이후 對 고려정책의 변화 등을 서술하였다.

이나바는 휘하에 많은 漢人을 두었던 쿠빌라이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모든 역량을 南宋 정벌에 결집하려 했기 때문에 병력 절약의 차원에서 高麗에 대해서도 침략을 거두고 회유적인 태도로 전환했으며, 고려도에 화답하여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쿠빌라이는 고려에 주둔했던 元 장군들의 보고를 통해 고려의 지형을, 또 자신의 휘하에 있던 金人, 漢人들의 덕분에 高麗圖經 등에 실려 있는 고려와 宋이 왕래하던 바닷길을 이용하면 南宋의 도성 臨安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려에 대한 방침을 병력 절감에서 南宋 기습으로 전환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그는 1268년 쿠빌라이가 黑山島 일대를 조사하도록 한 것에 주목했다. 黑山島는 高麗圖經에서 제시한 宋과 고려 사이의 교통의 요지로, 바닷길을 통해 南宋을 기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42) 稻葉岩吉, 1934, 『日麗關係』, 岩波書店, 20쪽. 이나바는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微溫의 狀態’에 빠진 이유를 신라말 이래 일본인들이 중국의 揚子江 하류 지방과 직접 교류하게 되면서 대륙 문물의 중계지였던 韓半島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 黑山島 일대에 대한 조사는 日本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는 것이 이나바의 새로운 주장이었다.

南宋과 高麗를 연결하는 최단거리는 이 黑山列島이다. … 그러나 日本으로는 方角이 다르다. 고려에서 일본으로 來往하는 것은 金州에서 博多를 향했다. 아무리 迂回해도 黑山島에서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宋인이 黑山島에 도달해 그 방향을 동쪽으로 하면 濟州(耽羅)에 도착하고, 이후 對馬水道로 나가기 때문에 黑山水道를 把握하는 것은 宋인의 일본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緊切하고 또 충분할 것이다.⁴³⁾

元이 해로를 통해 南宋을 기습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때 宋과 빈번히 교통했던 일본은 가장 우려되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만일 宋을 출발하여 黑山島에 도착한 후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 바로 이나바가 과거에 몽골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 경영했다고 주장했던 제주도(濟州)에 갈 수 있으며, 거기서 對馬島를 향하게 되면 곧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黑山島 일대의 水道를 파악하는 것은 南宋과 日本의 연결을 감시하는 데에도 중요했다는 것이 이나바의 설명이었다. 계속해서 그는 쿠빌라이가 黑山島 일대를 조사하고, 제주도를 경영한 것은 모두 고려를 통한 南宋으로의 要路를 파악하는 동시에 南宋과 일본의 통교를 막으려던 것이 틀림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확신했다. 즉 쿠빌라이가 즉위 당시부터 南宋과 일본의 관계를 우려했으며, 고려를 이용해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고려에 대해 회유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별다른 근거가 없던 과거 자신의 추정을 철회하며, 쿠빌라이 즉위 후 對 고려정책을 南宋 공략을 위한 병력의 집중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이나바는 다양한 사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쿠빌라이가 고려를 회유하는 과정에

43) 稻葉岩吉, 1934, 위의 책, 30~31쪽.

서 南宋 정벌을 위한 통로로서 고려의 가치에 눈을 뜨는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 일본을 견제했다며, 과거 자신의 논의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서 元의 제주도 경영만이 아니라 黑山島에 대한 탐사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의를 강화했다.

사실 쿠빌라이가 黑山島 일대의 水道를 조사한 것은 과거 아오야마 역시 언급한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아오야마는 고려와 일본의 교통로인 對馬島와 전혀 접하지 않는 지점에 있는 黑山島에 대한 조사는 元의 일본 공격 계획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 역시 고려에 대한 元의 종주권 확립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았다.⁴⁴⁾ 물론 이나바도 元은 南宋을 정벌하기 전까지 또 다른 敵國을 만들어 군사력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黑山島 일대에 대한 탐사를 직접적으로 元의 일본 침략과 연결시킬 수는 없으며, 당시까지 일본에 대한 元의 태도는 ‘親仁善隣’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나바는 쿠빌라이가 고려에서 진행했던 黑山島 일대에 대한 탐사, 제주도 경영 등 元의 對 고려정책을 南宋 공략을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對日정책으로서 평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나바가 『日麗關係』에서 제시한 이상의 설명은 元의 對日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元의 對 고려정책, 南宋 정벌과 아울러 元이 대두하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국(宋)과 일본의 교류라는 중일관계까지도 시야에 넣은 것이었다. 이는 동아시아사의 전개에 있어 대륙과 일본의 교통과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자 일본사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이후 보다 강고하게 자리를 잡아 갔다. 주지하듯이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 이래 일본의 대륙침략은 계속되었으며, 당시의 국제 질서 역시 동요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회고·정리하며 미래를 전망하고자 했으며, 이는 각종 통

44) 靑山公亮, 1921b, 앞의 논문, 33~34쪽.

사들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 역사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해당 분야를 주도하던 교수·연구자들이 필진으로 나서 출간된 ‘世界歷史大系’와 ‘歷史教育講座’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1933년부터 4년에 걸쳐 모두 25권 발간된 ‘世界歷史大系’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아시아는 물론 서유럽, 이집트까지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주로 중국사와 서양사(서유럽과 미국사)를 중심으로 했다. 1935년에서 1937년까지 42권이 출간된 ‘歷史教育講座’는 역사철학 및 역사교육 관련 각종 이론들을 소개하는 15권을 제외하면 일본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의 역사를 통사로서 정리한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세계 각지의 역사를 통사로서 정리하는 작업에 ‘朝鮮史’ 역시 포함되었으며, 이를 담당했던 것은 바로 이나바(世界歷史大系)와 나카무라(歷史教育講座)였다.⁴⁵⁾

이나바와 나카무라는 한국사에 대한 통사를 서술하면서 보다 넓은 지면을 통해 고려 건국 이래 번성했던 고려의 무역, 특히 宋을 상대로 한 무역을 제시하였다. 이나바의 경우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출자를 추적하며, 왕씨는 무역업자였고, 국초부터 무역 정책으로서 ‘南支那’와의 교통을 중요시했다며, 주요 무역품에 대한 사항까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뿐만 아니라 靖康의 變 직후 南宋에서 고려에 파견한 楊應誠이 황제 구출을 위해 假道를 요청하자 고려에서 南宋에 길을 빌려주면, 여진도 고려에 길을 빌려 南宋을 공격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는 高麗史의 기사를 그대로 제시하였다.⁴⁶⁾ 이는 고려가 元 건국 이전부터 중국과 북방의 세력들에게

45) 총 25권으로 구성된 ‘世界歷史大系’의 제 11권은 『朝鮮史·滿洲史』로 각각 조선과 만주의 역사에 대한 통사를 묶어 1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편 4편 42권으로 구성된 ‘歷史教育講座’의 3편 제 1권은 『朝鮮史』로 한일관계사에 대한 통사이다.(1930년대 일본학계에서의 연구사 정리와 통사의 등장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의 이해」, 『역사와 현실』 104, 94~96쪽을 참고할 것.)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교섭의 대상이었던 한편 북방 세력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려 건국 초부터 고려와 宋의 빈번한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카무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카무라가 서술한 ‘歷史教育講座’의 『朝鮮史』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에 대한 통사를 서술한 것인데, 그는 고려시대에 대한 章을 ‘元寇’라고 명명했다. 이는 일본사의 입장에서 몽골의 일본 침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고려시대의 한일관계를 바라보던 그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⁴⁷⁾ 물론 元의 일본 침략에 관한 부분은 일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카무라 역시 ‘元寇’의 전개와 경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왕에 뛰어난 연구가 많으며, 이케우치의 『元寇の新研究』를 참조하라는 것 외에는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려 건국 이래 고려와 송, 고려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활발한 교통에 주목하며, 이는 고려 文宗代를 전후해서는 극성기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시 고려와 일본 사이에는 눈에 띄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카무라는 고려 文宗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名醫의 파견을 일본에도 요청했으며, 義天이 대장정을 준비하며 宋에서 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구했고, 宋의 승려가 일본에 귀화했던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고려, 송, 일본은 통상만이 아니라 문화적 교섭도 빈번했다고 추정했다.⁴⁸⁾

이렇게 고려 건국 이래 고려-송, 고려-송-일본 사이의 빈번했던 교통

46) 稻葉岩吉, 1935, 『朝鮮史・滿洲史』, 平凡社, 85~90쪽, 103~104쪽.

47) ‘元寇’라는 역사용어는 중국의 문헌에서 사용되는 ‘倭寇’라는 용어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메이지기에 발생한 造語라고 이야기된다.(杉山正明, 1995, 『クビライの挑戰: モンゴル海上帝國への道』, 朝日新聞社, 187쪽.) 즉 일본의 입장에서 대륙을 타자화하며 만들어진 용어라 하겠다.

48) 中村榮孝, 1935, 『朝鮮史』, 四海書房, 29~30쪽.

에 대한 서술은 자연스럽게 그 교통로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여기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高麗圖經에서 제시한 宋과 고려 사이의 海路, 바로 浙江省의 明州에서 黑山島를 거쳐 禮成江邊에 이르는 海道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바로 이러한 海道를 따라 義天 역시 宋으로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黑山島에서 한반도의 남해안을 타고 耽羅를 거쳐 對馬 壹岐(壹州)를 경유하여 일본(博多津)으로 오는 길을 따라 고려, 송, 일본은 서로 활발하게 통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⁴⁹⁾

이들이 이렇게 고려 건국 이래 고려의 해안을 통한 고려, 송, 일본의 교통을 기술한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蒙古襲來 이전부터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사의 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로 이나바는 고려 건국 이래 고려와 宋의 교통에 대해 이와 같이 서술하고 元의 고려 침략과 고려 왕실의 江華 도피, 쿠빌라이 즉위 이후 대 고려정책의 전환과 흑산도 일대에 대한 조사나 제주도 경영이라는 고려에 대한 元의 정책은 南宋 정벌에 앞서 일본과 南宋의 통교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과거 자신이 『日麗關係』에서 제시했던 설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나카무라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元이 南宋을 토멸하여 ‘支那’에 군림하려고 했을 때, 동방에 당면한 고려 및 일본과 南宋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주의해야만 했으며, 오랫동안 고려 공략에 힘을 쏟았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려의 복속과 동시에 일본에 通好를 원하여 사신을 파견했고, 특히 일본과 宋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반면 일본이 元과 通好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여 고려의 黑山島와 耽羅에도 사신을 보내어 일본-송 교통의 항로를 시찰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通好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무력으로 복속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나카무라는 이렇게 고려, 宋, 일본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

49) 稻葉岩吉, 1935, 앞의 책, 86~87쪽; 中村榮考, 1935, 위의 책, 31쪽. 특히 稻葉은 이 부분을 서술하며 高麗圖經의 일부를 사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에 元의 일본 침략은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까지 서술하였다.⁵⁰⁾ 이상과 같은 이나바와 나카무라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海東 日本이 가지고 있는 地位가 古來부터 이렇게 미묘한 관계에 두어졌던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일본 및 일본인들이 (이를) 의식하든 아니든 관계없는 것이다. …大陸인들이 당시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일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는 상당히 중대한 것이어서…⁵¹⁾

文永, 弘安 양 차례의 元寇에 대해서는 … 그 역사성을 잘 검토해 보면, 첫 번째는 당시에 있어 우리의(일본: 필자) 대외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알맞은 사실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⁵²⁾

위와 같은 내용은 ‘朝鮮史’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한국사에 대한 통사의 서술로서 어색한 것이다. 이나바와 나카무라는 한국사에 대한 통사를 서술하며 고려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고려 개국 이래 활발했던 대외관계를 들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이후 전개된 元의 對 고려정책을 설명했다. 이는 다시 蒙古襲來 이전부터 이루어진 대륙과 일본의 지속적인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사 전개에 있어서 차지했던 위상을 부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즉 고려시대의 활발했던 대외교섭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와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한국사에 대한 서술에서 일본에 대한 대륙의 관심과 元의 일본 침략의 전제로서 일본사의 위상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로서 자리잡은 것이다.

50) 稻葉岩吉, 1935, 앞의 책, 106~114쪽; 中村榮考, 1935, 앞의 책, 33~35쪽.

51) 稻葉岩吉, 1935, 앞의 책, 115쪽.

52) 中村榮考, 1935, 앞의 책, 35~36쪽.

IV. 결어

고려왕조가 존속했던 10~14세기는 거란, 여진, 몽골 등과 같은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 연이어 강성해지며 중국, 고려 등 주변을 침략·압박함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가 요동쳤다. 이는 중국을 대신하여 일본 중심의 새로운 세계로서 ‘동양’을 형성하고자 했던 일본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편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래로 19세기 말 이래 식민지기에 걸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 연구들은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식민주의 역사학이 기반하고 있던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국사는 외세에 의해 결정된다는 ‘타율성론’이다. 상대적으로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이 적지만 주로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사의 타율성을 드러냈다고 이야기되는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려시대 연구 경향을 당시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과제, 바로 ‘동양’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무리한 것일까? 과거 강고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신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서 ‘동양’을 구성하는 가운데 북방의 강자들이 등장하여 중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던 과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저들이 침략했던 고려와 저들과 고려의 관계를 탐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의 ‘타율성’ 이상을 이야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蒙古襲來를 전후한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들은 元에 대한 고려의 복속, 宋 또는 元이라는 대륙과 일본 사이의 교량으로서의 반도라는, 한국사에 대한 타율성론에 기반한 것이

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고려시대에 미친 외세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타율성론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은 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고려에서 元의 종주권 확립이 元이 대일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선결과제였다고 하며 고려를 매개로 한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蒙古襲來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元의 南宋 경략은 물론 대륙의 세력들과 고려 및 일본과의 관계까지도 시야에 담으며 일본의 존재를 당시 동아시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위치짓는 것은 아시아의 역사를 武의 北과 文의 南 사이의 투쟁 과정으로 정리하고, 일본을 남북의 속성을 모두 간직한 존재로 위치지었던 시라토리[白鳥庫吉]의 남북이원론의 13세기 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蒙古襲來라는 사건을 고려의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나아갔던 과거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이 사건을 동아시아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대륙과 일본을 연결시켰음은 물론 대륙의 역사적 전개에 주요한 변수로서 일본을 위치짓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시 연구자들은 13세기 중반에서 거슬러 올라가 고려 건국 이래 고려와 송·일본이라는 동아시아 3국의 관계와 교통에 대한 고찰로 그 시야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이 대륙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본고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31년, 훗날 宋과 日本의 관계에 대한 최고 권위자가 되는, 젊은 날의 모리 카즈미[森克己]는 11세기 후반 이래 고려는 송과 일본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고, 일본 상인들이 宋 방면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며 당시 고려의 지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⁵³⁾ 즉 당시 고려의 대외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인 연구자들은 대륙을 향한 교량으로서의 한국(半島)이라는, 한국사에 대한 타율성론에 기

53) 森克己, 1931, 「日宋交通發達過程に於ける高麗の地位(要約)」, 『史學雜誌』 42-7, 93~94쪽.

반하여 일본사의 발전 과정과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동아시아사의 역사적 전개에서 일본사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蒙古襲來를 둘러싼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단지 한국사에 대한 왜곡을 넘어서 일본사의 해명과 위상확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침략과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역사 왜곡이라는 측면의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일본사의 해명과 위상확보라는 측면은 蒙古襲來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의 임나일본부나, 이후의 임진왜란 등과 같이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 역시 왜곡의 측면만큼이나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드러내어 일본사를 대륙사의 일부로서 바라보며 일본의 발전 과정을 드러내는 측면 역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은 蒙古襲來를 元의 南宋 정벌과 연관시키며, 특히 1차 침략 이전의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南宋 정벌과 일본을 연결지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蒙古襲來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 당시 쿠빌라이가 일본 정벌에 나선 것은 군사적 정복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蒙古襲來 직전 元의 일본 초유나 1차 원정은 南宋 공략의 일환으로서 南宋 정벌을 전개함에 있어서 南宋과 일본의 연락을 막기 위한 무력시위였다는 것은 현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⁵⁴⁾ 이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현재적 의미 역시 말해 주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 역시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54) 杉山正明, 앞의 책, 184~185쪽; 石井進, 2000, 『鎌倉びとの聲を聞く』, 56~57쪽; 남기학, 2003, 「중세 고려·일본 관계의 쟁점」,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47쪽.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http://db.history.go.kr/KOREA>)

林泰輔, 1892, 『朝鮮史』 卷4・5, 吉川半七.

池内宏, 1918,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5; 1920, 「高麗顯宗朝に於ける契丹の侵入」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7; 池内宏, 1924,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0; 1931,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青山公亮, 1921a, 「日元間の高麗」1 『史學雜誌』 32-8; 1921b, 「日元間の高麗」2, 『史學雜誌』 32-9; 1925, 「弘安役と高麗」, 『史學雜誌』 36-10.

中村英孝, 1926a,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1 『史學雜誌』 37-6; 1926b,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2 『史學雜誌』 37-7; 1926c,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3 『史學雜誌』 37-8; 1935, 『朝鮮史』, 四海書房.

稻葉岩吉, 1925, 「支那及滿洲朝鮮と日本との關係」 『朝鮮文化史研究』; 1932, 「東洋史學發達の回顧と展望 - 朝鮮史」 『明治以後に於ける歴史學の發達』, 歴史教育研究會; 1934, 『日麗關係』, 岩波書店; 1935, 『朝鮮史・滿洲史』, 平凡社.

森克己, 1931, 「日宋交通發達過程に於ける高麗の地位(要約)」 『史學雜誌』 42-7.

2. 논저

李基白, 1961, 『國史新論』, 泰成社.

- 末松保和 編, 1972, 『朝鮮研究文獻目錄 1868-1945, 論文・記事編』(I).
-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杉山正明, 1995, 『クビライの挑戦: モンゴル海上帝國への道』, 朝日新聞社.
- 윤해동·이성시 엮음, 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 함께.
- 윤해동·장신 엮음, 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소명출판.
- 윤해동·정준영 편, 2018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도서출판 선인.
- 최재석, 2003, 「1892년 하야씨 타이호(林泰輔)의 『朝鮮史』 비판」 『선사와 고대』 18.
- 朴杰淳, 1992, 「日帝下 日人の 朝鮮史研究 學會와 歴史(高麗史) 歪曲」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 박종기, 1994, 「고려사회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 5, 한길사.
- 남기학, 2003, 「중세 고려·일본 관계의 쟁점」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몽골의 일본 침략 - 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 『한림일본학』 19.
- 이만열, 2005, 「近現代 韓日關係 研究史-日本人의 韓國史研究를 中心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
- 權純哲, 2009, 「林泰輔의『朝鮮史』研究の内容と意義」 『埼玉大學紀要』 45-2.
- 최혜주, 2010, 「근대 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 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 윤용혁, 2013, 「日本에 있어서 ‘元寇’ 연구의 현황(1976~2011)」 『도서문화』 14.
- 권영국, 2014,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사학연구』 115.
- 김대식, 2014, 「일본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영토·영해 문제의 기원」 『사학연구』 115; 2018, 「일제강점기 일본식민사학자들의 고려 영토 인식」 『사림』 63.
-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2014,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 편찬 사업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갈등 양상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사학연구』 116; 2017, 「일제 하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 『역사와 현실』 104; 2017,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관성 - 『朝鮮史』 제 3편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윤해동, 2015,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洪珣瑛, 2018, 「세노 우마쿠마(瀨野馬熊)의 編史활동과 한국사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85.

Abstract

Studies about Goryeo in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 Focus on Studies about Mongol Invasion to Japan

Jeong, Sang woo

Since the late 19th century, modernization and imperialization have progressed simultaneously in Japan. Considering this historical process of Japan, the studies of Japanese historians at that time has the attributes of modern historiography as well as justifying Japan's invasion into the surrounding areas. It is also said tha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modern historiography in Japan was the process of forming the "Tōyō."(the Orient, 東洋) Then, Japanese historians' studies on the history of East Asia, including Korean history at the time, needs to be position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ōyō," and its meaning should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superficially, Goryeo dynasty was a time to show the external and internal turmoil of Korean history to Japanese historians. This is because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re were well known events represented by repeated invasions by the northern people such like Khitans, Jurchens, Mongols and rebellion of the Myocheng, political changes by soldiers. However, if you look at past Japanese historians' studies on the Goryeo Dynasty, you can see something interesting. It shows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Mongol invasion of Goryeo, interference of the Yuan, the invasion to Japan of the Goryeo and Mongol Allies, and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Goryeo before and after the Mongol Invasion to Japan.

This is based primarily on the theory of heteronomy on Korean history, given that it focuses on external relations during the Goryeo Dynasty. However, “Mongol Invasion to Japan” is directly related to Japanese history, and it was an event that could maximize the status of Japanese history in that Yuan, the world’s strongest country at the time, did not achieve its goal. In addition, the incident was literally an East Asian incident involving several countries at the time, including Goryeo, Yuan, Sung and Japan.

This paper considers the studies of Japanese historians in the past who approached the Mongol Invasion to Japan through external relations of Goryeo in terms of the formation of the so-called “Tōyō.” At that time, Japanese historians understood that the establishment of suzerainty of Yuan in Goryeo was a prerequisite for Yuan’s policy toward Japan. In other words, it looked at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Goryeo as a precondition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inent(Yuan) and Japan. In addition, as a precondition for understanding Mongol invasion to Japan, Yuan’s conquer on South Sung as well as its relationship with Goryeo and Japan was included in the field of view, positioning Japan’s existence as an important variabl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Japanese historians at the time expanded their perspective to the past before the mid-13th century from this perspective. Since the founding of the Goryeo Dynasty, they have studi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transportation of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Goryeo, Sung and Japan. And through this, they insisted the continuous relations between continent and Japan. In other words, Japanese historians who focused on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Goryeo for understanding the Mongol invasion to

사학연구 제141호(2021. 3)

Japan, looked at the incident as an East Asian event and connected the continent with Japan, but also positioned Japan as a major variable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continent.

Keywords :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modern historiography, East Asia, Tōyō(the Orient, 東洋), the Mongol invasion to Japan